

# “지역 광의료·통신기업 중동·미주 진출 발판 마련”

광산업진흥회, 美 등 판로지원 550여건 상담 133만 달러 계약 바이어 국내초청 등 성과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매출 증대”

국내 광의료 및 광통신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미국과 중동에서 호응을 얻으며 지역 광산업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5일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국내 광융합기업 22개사와 함께 중동 및 미주 지역 공략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바이 의료기기전시회(ArabHealth 2023)와 미국 광학 전시회(PhotonicsWest2023)에서 공동관을 구성,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최된 세계 3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두바이 의료기기전시회 ‘아랍헬스’에서는 국내 광의료기업 12개사가 UAE(아랍에미리트) 지역 해외바이어들에게 K-방역 및 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여 450건의 상



지난 2일까지 개최된 두바이의료기기전시회 ‘아랍헬스’에서 국내 광의료기업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K-방역 및 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담, 약 2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통해 100만달러가량의 계약 체결 실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진흥회는 UAE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국내 광의료기기 기업의 두바이 현지 진출과 K-메디컬센터 및 K-광의료기기 쇼핑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해 향후 국내 광

의료기기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UAE는 정부 차원에서 병원 시설 현대화와 민간 병원 확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 따른 한국과의 교류 확대 분위기 조성과 UAE 지역 소비자의 뷰티 및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매

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UAE 시장 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UAE의 광의료기 시장은 매년 약 6.9%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기준 약 13억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미국광학전시회인 ‘포토닉스웨스트’에서는 국내 광학·광통신 10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해 미주·유럽 해외바이어들에게 국내의 우수한 광학렌즈 및 레이저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진흥회는 국내 광기업들의 미주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5년간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30여개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그동안 구축해놓은 주요 해외 바이어와 학회 인사들이 전시회 기간 중 꾸준히 방문해 95건의 상담과 34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약 33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주 지역 수출 거점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미국광학전시회 참여 기업 중 주식회사 필로포스의 경우 전시회 주최측(SPIE)

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는 SPIE 프리즘 어워드 생의학 분야에 올해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돼 국내 광융합기업체로서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15주년을 맞은 SPIE 프리즘 어워드는 국제 광학·포토닉스 협회 SPIE가 최근 시장에서 출시된 가장 혁신적인 광학·포토닉스 제품을 8개 분야에서 각 3개씩 선정하는 어워드, 필로포스가 개발한 안과용 공간업 단층 촬영기기가 생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진흥회는 이번 중동·미주 전시 성과에 힘입어 현지에서 발굴된 유망 바이어들을 올해 8월과 11월에 개최 예정인 광융합수출 상담회 및 국제 광융합산업 로드쇼에 전략적으로 초청해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철동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렸던 국내 광산업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광융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은행, 고객패널 ‘톡톡 자문단’ 7기 발대식

### 고객중심·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고객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패널 ‘톡톡(Talk-Talk)자문단’ 제7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사진)

‘톡톡(Talk-Talk)자문단’은 지난 2017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기 위한 소통채널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자문단 의견을 금융상품 개발 및 비대면 채널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7기 ‘톡톡(Talk-Talk)자문단’은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30대 MZ세대 고객부터 40대 고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10명의 위원을 선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금융상품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문단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광주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제도 개선 및 도입 등에 대한 고객의 시각을 광주은행에 전달하고, 광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등을 금융서비스개발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은행은 본격적으로 비대면 금

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주요고객 대상이 되고 있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Z세대)’ 고객에 대한 금융니즈를 파악하고, 더불어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과의 디지털 격차를 좁힘으로써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톡톡(Talk-Talk)자문단’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내부 직원들의 시각과는 또 다른 시선으로 광주은행의 개선사항과 다른 은행 경험과의 비교사항 등을 가감없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고객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정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권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제 1053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2 26 29 30 34 45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40억903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7456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7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 행복일터 만들기 앞장”

## 스타기업 센도리, 창조아카데미 ESG 경영 등 통해 임직원 소통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로부터 지역 스타기업으로 지정 받은 센도리가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직장문화와 행복일터 만들기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중소기업 센도리에 따르면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창조아카데미 개설하고 지난 3일 사내 복지 갤러리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첫 특강을 진행했다.

센도리는 1995년 창업이후 28년 동안 꾸준히 공기조화기 관련기술을 개발·제조해 온 친환경 리딩기업으로 기후 에너지 분야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센도리는 경영가치를 ‘기술을 넘어 임직원 행복 만들기’에 두고 기업과 사원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바람직한 제도 개선, 의식구조 변화, 창의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사내에 복지 갤러리관을 신축해 사원들과 대화의 공간을 마련한데 이어 창조아카데미를 개설해 제1회 강의로 기미현 광주상공회의소 파트너 강사를 초청해 ‘공생 공존 성과를 올리는 직장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기미현 강사는 “임직원들간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직장예절과 올바른 소통이 조직문화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면서 위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막는 방법으로 지식의 저주, 수직화, 고맥락의 오류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센도리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 창조 아

카데미를 매월 1회 운영해 리더십, 조직 관리, 창조적 마인드, 마케팅 전략을 비롯해 ESG경영, 기술혁신, 경제, 인문학 등 사원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문수 센도리 대표는 “전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며 열정을 갖고 기술개발을 계속해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꿈이다”면서 “항상 사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경영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도리는 냉난방 공조분야의 50여개 특허와 신기술,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녹색기술인증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 위기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 강화

### 중기부 ‘scale-up R&D’ 사업 나주일반·장흥바이오식품 등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기 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3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사업은 1단계로 현장수요형 R&D를 통해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에게 현장 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2단

계인 Scale-up R&D를 연계 지원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54억원으로 1단계에서 4억원(400만원, 100개 과제, 정부 출연금 100%), 2단계에서 50억원(1억원, 50개 과제, 총사업비의 75% 이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지역인 경남·울산·전북·전남 소재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영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에도 지난해 10월에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소재 사·도(경북)의 철강산업 영위기업 및 위기장후 단계가 ‘주’ 또는 ‘심각’ 지역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및 집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는 △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 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등이 해당된다.

사업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